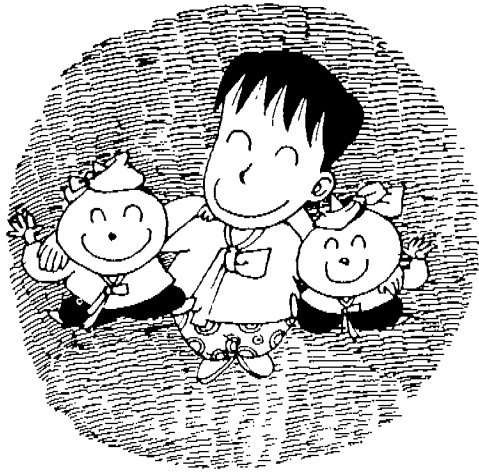




전통사랑방은

‘전통문화 사랑방활동’의 전체 내용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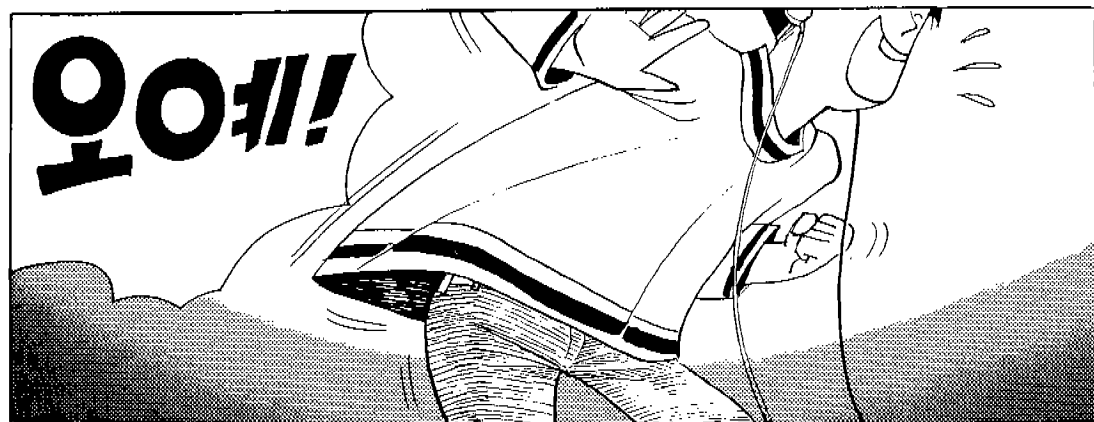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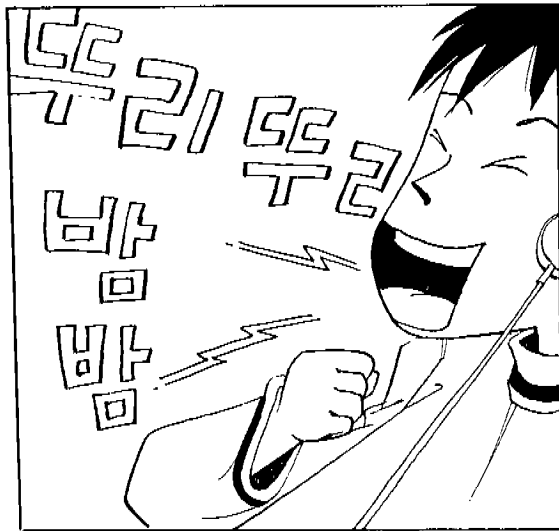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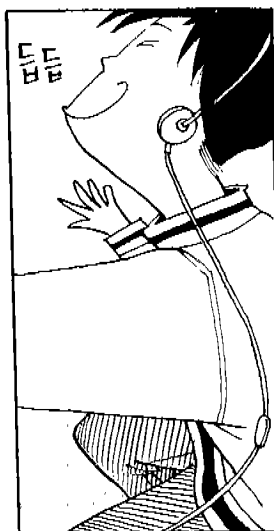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노래 익히기, 우리악기 익히기, 우리춤 익히기, 우리극 익히기, 우리풍속 익히기 등 전통문화 사랑방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및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즐거운 풍속마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지침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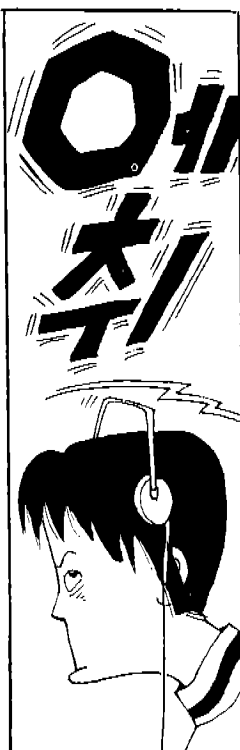
이 책은 병석이라는 청소년이 전통사랑방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그린 만화형식의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병석이와 오통이(노래익히기 활동의 노통이, 악기익히기 활동의 악통이, 춤익히기 활동의 춤통이, 극익히기 활동의 극통이, 풍속익히기 활동의 풍통이)의 만남을 통해 병석이가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재창조하는 모습과 전통문화가 지닌 통일성과 주체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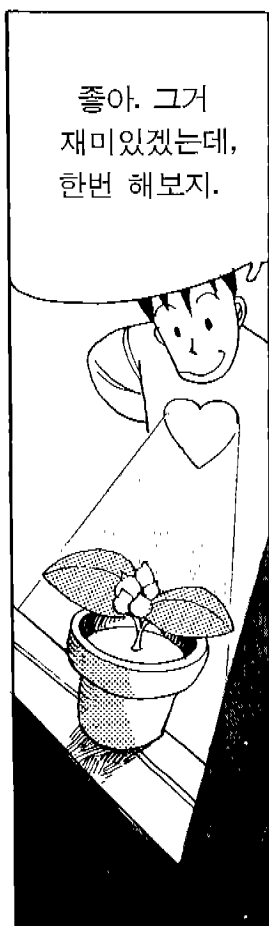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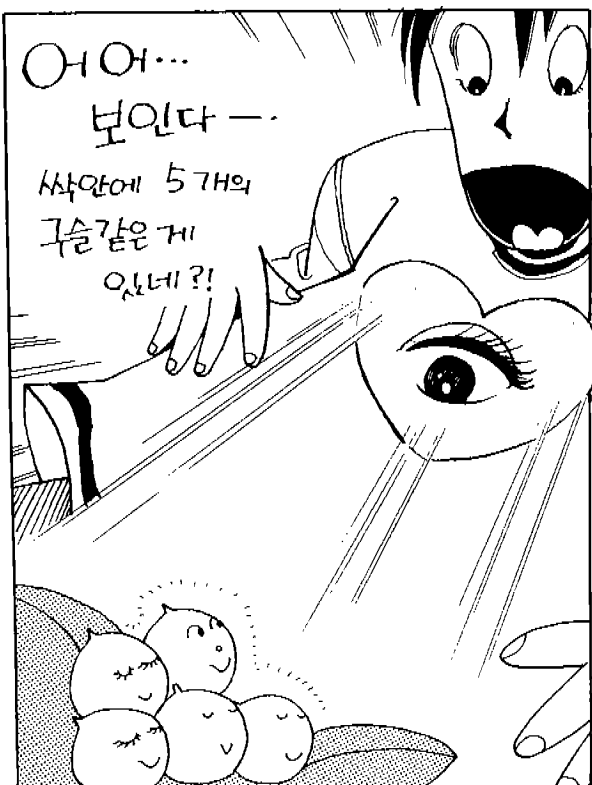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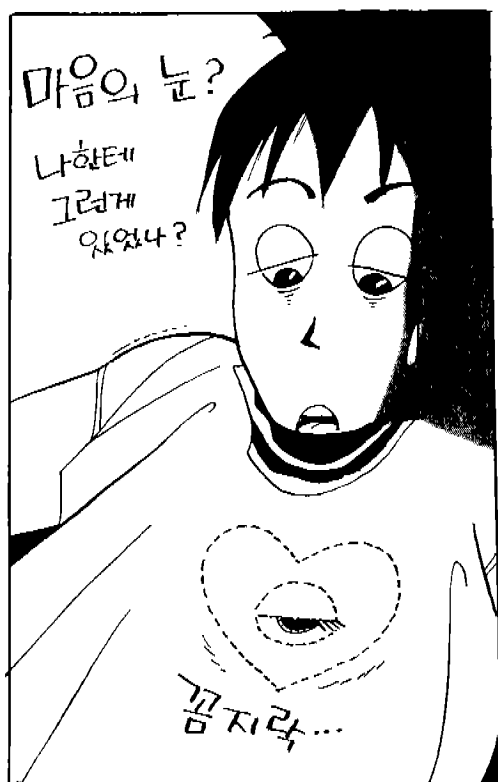
이 책은 청소년들이 보다 흥미를 가지고 친근하게 전통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동기를 일으키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오통이의 꿈

— 다시 찾은 전통사랑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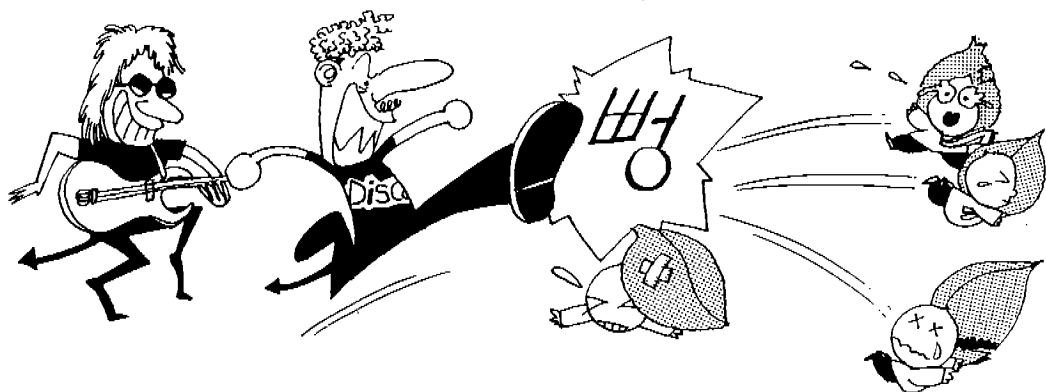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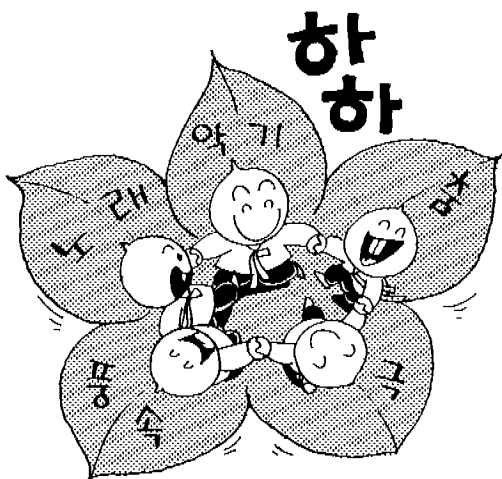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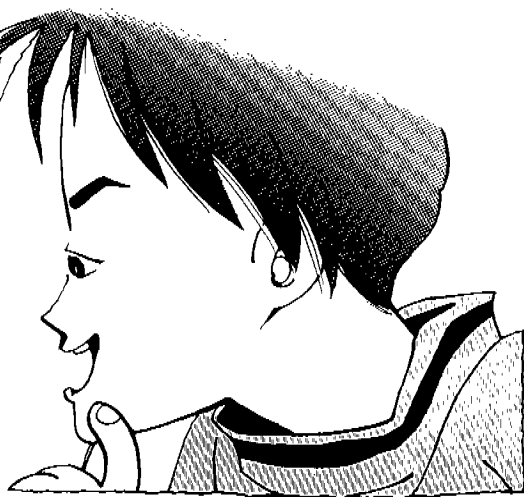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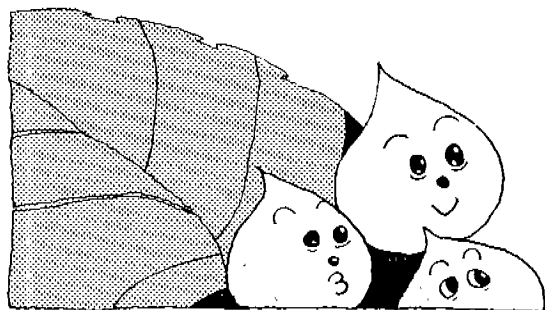
옛날에 우린 노래나라, 악기나라,
춤나라, 극나라, 풍속나라를 이루면서
'전통'이란 보물을 소중히 하며
살고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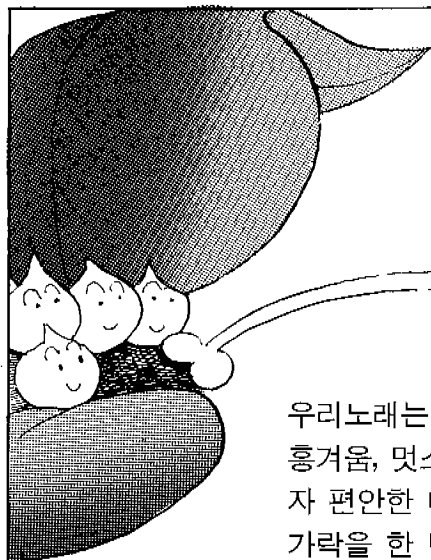
그런데 어느날 이상한 노래와 춤들이
날아와서 우리를 쫓아버렸어.



그래서 전통은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그날 이후 우리 다섯 나라도 서로를 잊고 살아가게 되었단다.
그 전에는 멋진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만들고 춤도 추고 재미있는
극도 하며 흥겹게 살았는데...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 있다고?
직접 보여 줘 봐.





나부터 해볼게
난 노래를 잘하는
'노통' 이란다.

우리노래는 우리의 가슴속에 있는 한파
흥겨움, 멋스러움을 담아내고 있어.

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락을 한 번 그려봐. 그리고 그 가락을 읊조리면서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지 이야기해 보렴.



새하얀 새하얀
새하얀 새하얀

파랑새하얀
꽃이

녹두 밭에

안지 마라

♪ ♪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워.

그것 봐! 우리노래는 항상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거야. 네가 언젠가 다시 불러주기만을



우와
대단히
다양하구나

기다리면서 말야. 네가 방금 부른 것은 민요야. 그런데 우리
노래는 민요 외에도 판소리, 잡가, 선소리, 시조, 가곡 등
다양하단다. 지역별로 특징이 다르고, 성격도, 발성법도
다르단다.

나도 한국 해 볼게!

장산꽃

마루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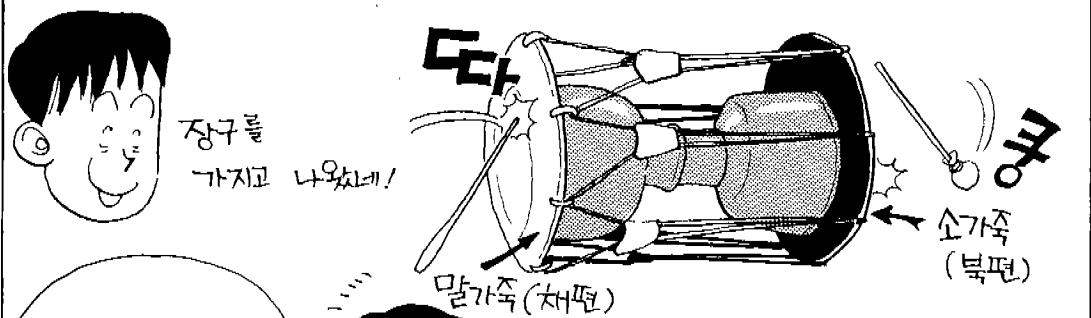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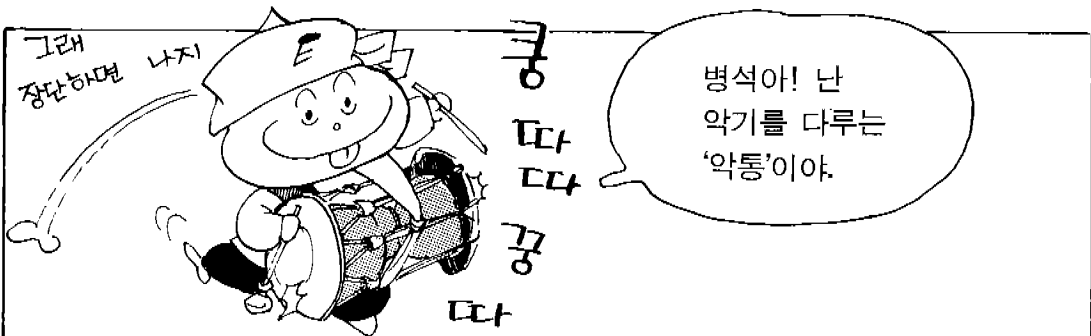
콩따 따

열쭉

장단을
맞추면서 부르면
훨씬 재미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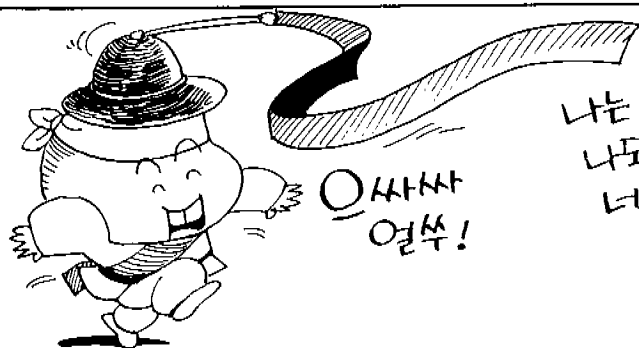


장단은 민요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 일이 고되고 힘들 때도
우리 조상들은 장단에 맞추어
시름을 잊고 열심히 일을 했단다.



대금은 '젓대'라고도 불렀는데 젓대로 불면 쳐들어 오던 적들이 물러가고 가을 때에는 비가 오며 거센 바람도 높은 파도도 잠잠해진다고 해서 '만파식적'이라고 불렀던 신비스러운 악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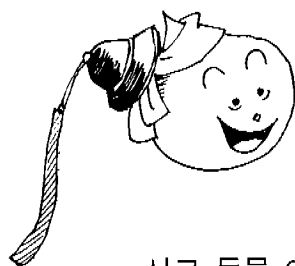


나는 '춤'이야
나도 노동이, 악동이 처럼 항상
너의 곁에 있다.

으쌔쌔
얼쑤!

춤은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움직임 하나하나가
춤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네가 가만히 있어도
너는 우리의 춤을 추고 있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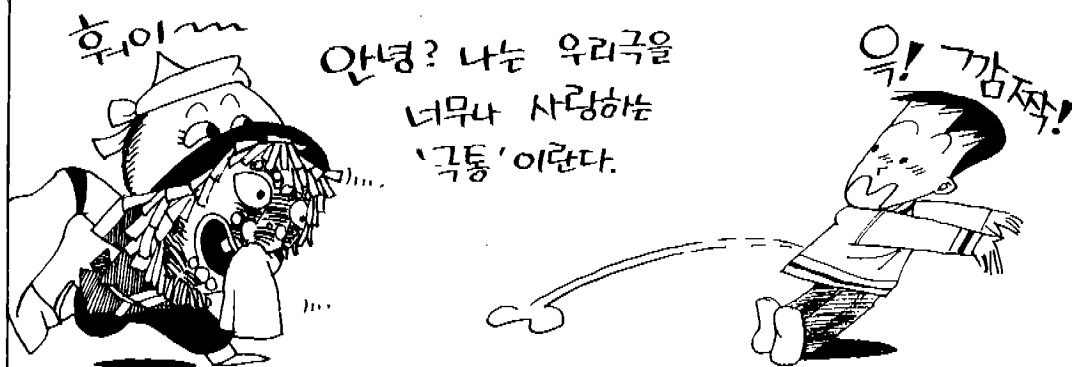
우리 춤에는 탈춤, 농악무, 무당춤, 승무 등 특색 있는 춤이
아주 많아. 모두가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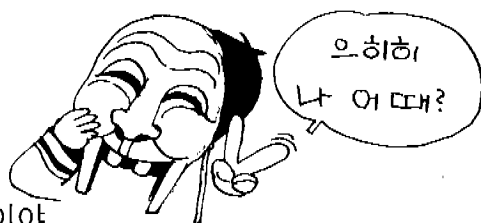
너 동물춤 한번 춰볼래? 으잉?

서로 동물 이름을 부르면 그 동물의
모양을 흉내내서 춤을 추는거야.
우리 전통 춤에는 여러가지 동물을
형상한 춤들이 아주 많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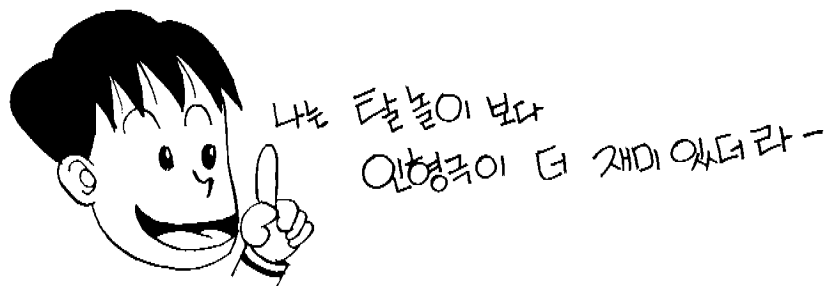




우리의 극은 조상들이 살아온 생활의 모습을 풍자하며 발전해 왔단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



병석이가 쓰고 있는 탈은 '하회탈'이야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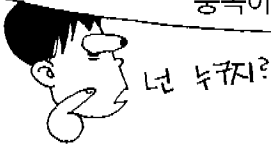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형극은 장난감인형놀이, 그림자놀이, 만석중놀이, 꼭두각시 놀음 등이 있는데, 인형극에 가장 가까운 것이 꼭두각시 놀음이란단다.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꼭두각시 같다”고 하는데, 이 말은 바로 인형같이 움직인다는 말과 같단다. 대사도 생활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어서 참 재미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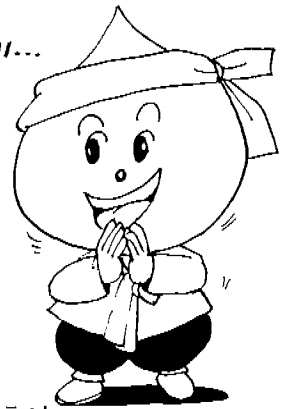


꼭두각시 놀음은 충남의
서산지방에서 유명한데,
충남지방에서는 정월에 마을의 길함을
받기 위해 '별신제'라는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다.



넌 누끼?

하하...
난
풍속에
대해서 꼭잡고
있어 '풍통'이야.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날 새옷을 입고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풍속은 우리 조상들이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되풀이해 왔는데, 이러한 풍속은
음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나의 생일은 음력밖에
없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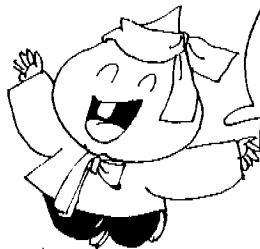
설날은
세배돈도
받고 덕담도
들어서 좋아.



풍통이 너는
그러니까
세시풍속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 세배돈도 좋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야.
그래서 옛부터 조상들은
연초에 점을 많이 보셨단다.
너도 알거야
'토정비결'이나 '삼재법' 같은
것들 말이야

풍속마다
놀거리도
많지 않니?
먹거리도
많고...



맞아!
각 풍속에는 그 풍속에
맞는 놀거리가 많아. 농촌에는
소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사에
지친 소를 위로하고, 힘겨운
농사에서 즐거움을 찾는
놀이지.

그럼 그 놀이는 농사와 관련된
게니까
어촌에도
어업과 관련된 풍속이
있겠지?



그렇고 말고. 어촌에는
어촌에 맞는, 그리고
산촌에는 산촌에 맞는 풍속이
많아. 네가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바로 너의 옆에 항상 있단다.

노통, 악통, 춤통, 극통,
풍통이는 모두 한형제란다.
우리는 네 옆에서 항상
너를 기다려 왔어!
우리 이제라도 친구가
되지 않을까?

조용히
대단해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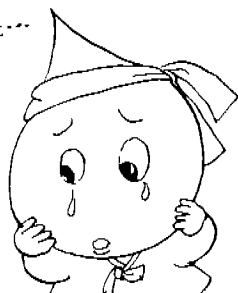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 오동이가
형제는 서로 볼수가
없어... 계속 멀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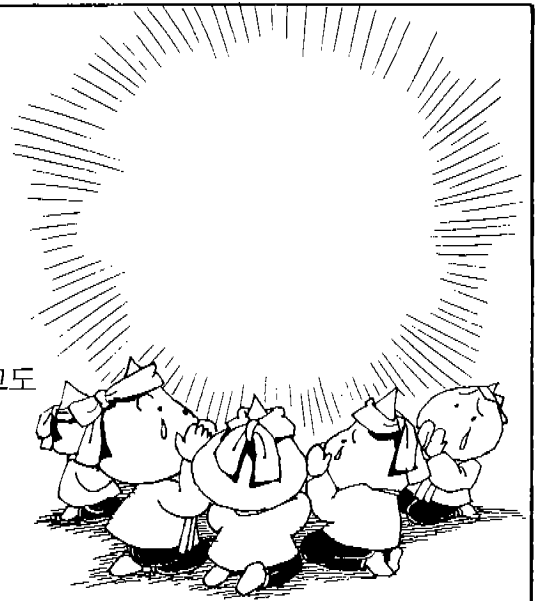
아니... 오해?

이상한 노래와 춤한테
쫓겨서 우리 계속 잊혀져
가고 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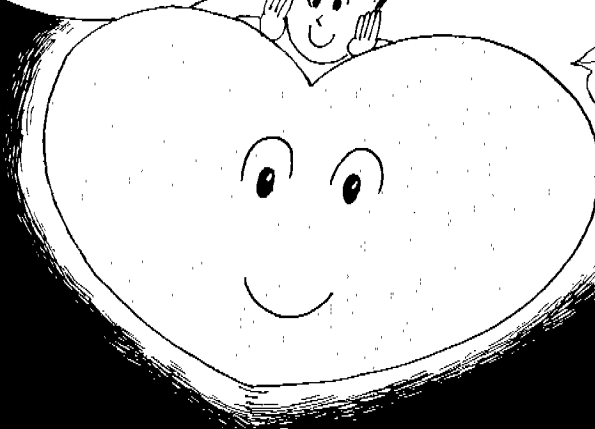
전통을 다시
찾아야
볼수가
있을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전통을 되찾기 위해 우리님께
빌었어. 그러자 우리님은
다섯나라의 왕자인 우리 5형제가
힘을 합쳐 청소년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댔어. 그래서 우리의 슬프고도
간절한 이야기를 전해서
감동시킨다면 '전통'이란
보물을 되살려 주신댔어.



흐음 그래서
너희를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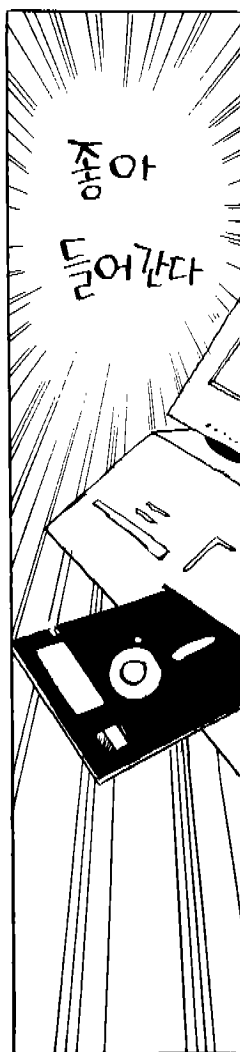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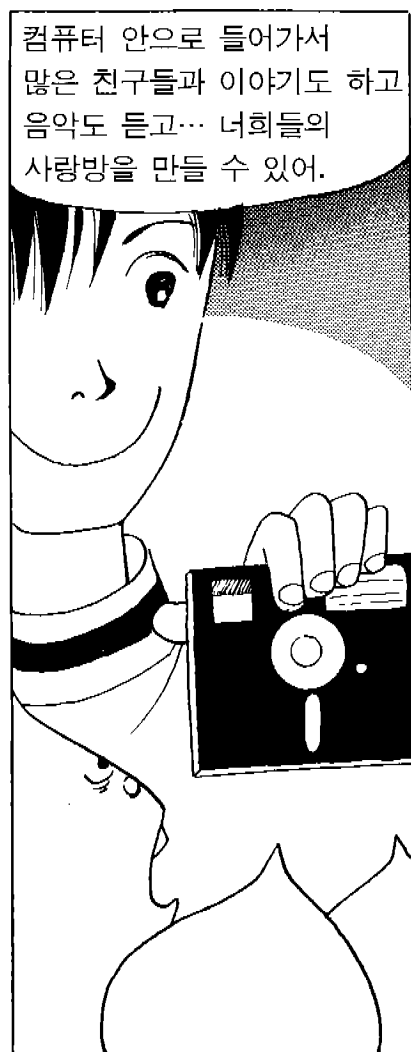
그래 그래서
우린 지금
열심히 네 마음속에
전통의 싹을
키우고 있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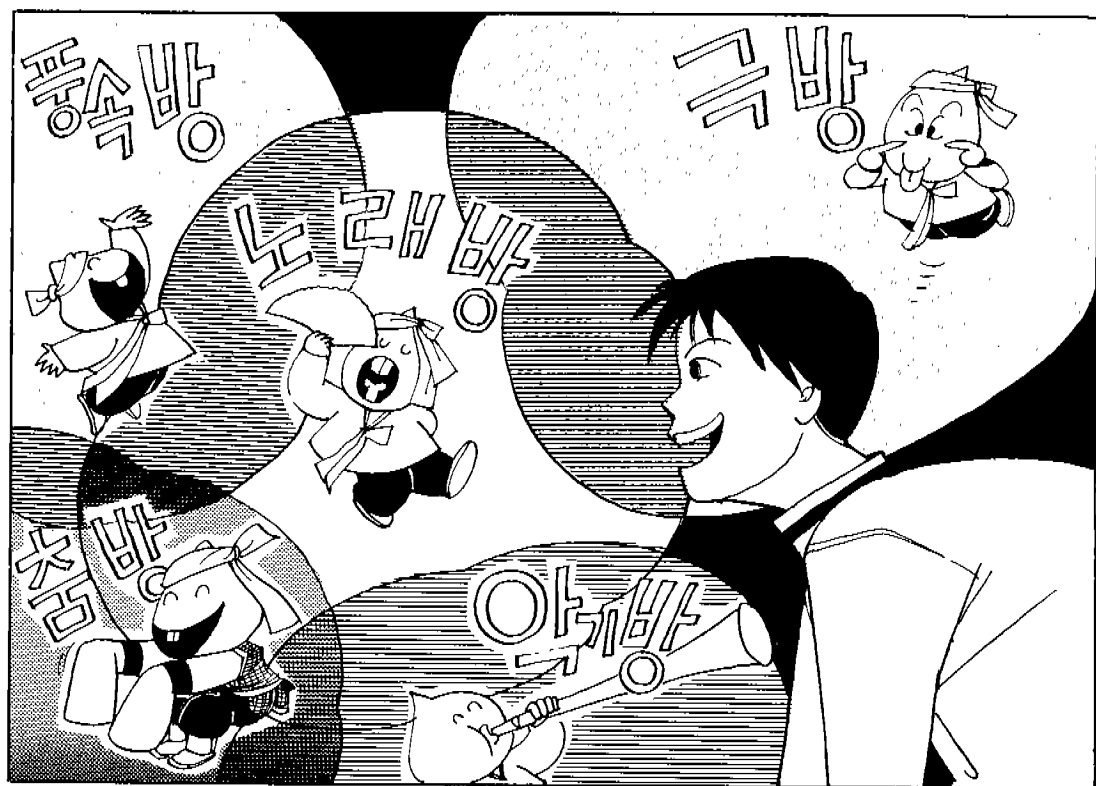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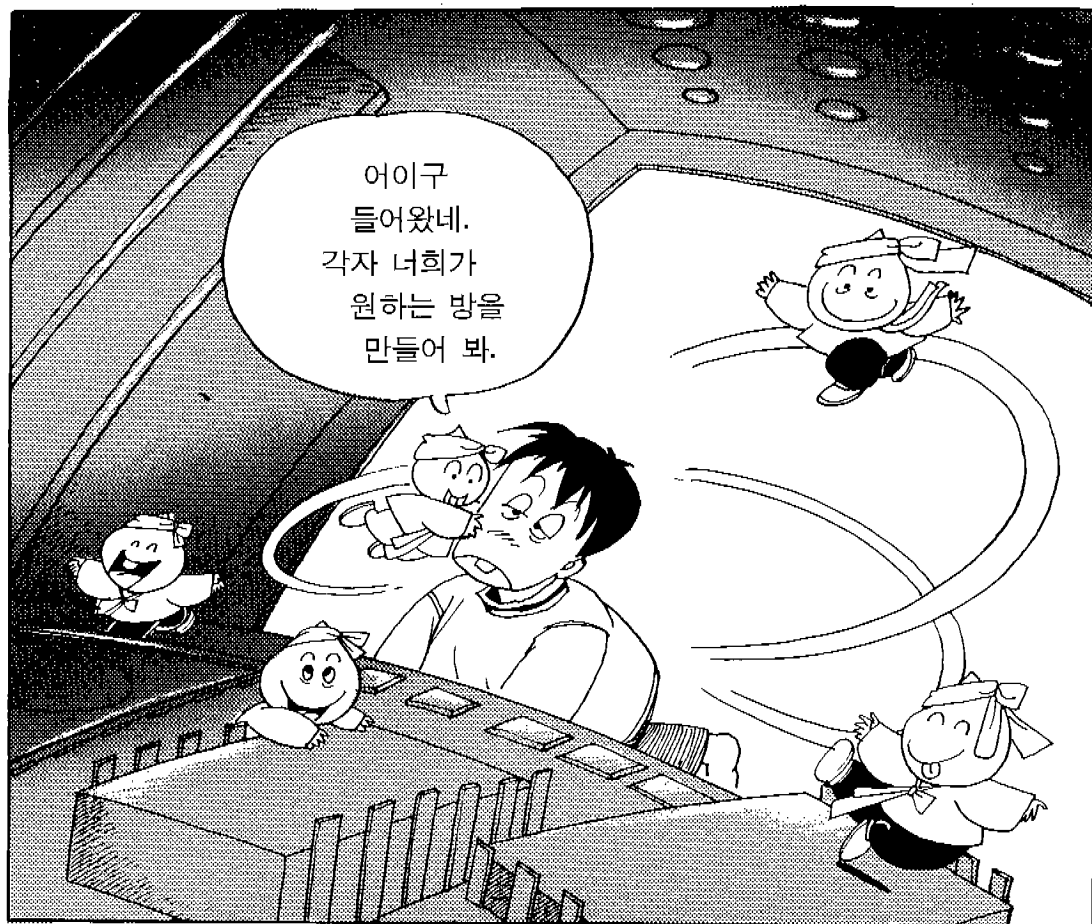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울 방법은
없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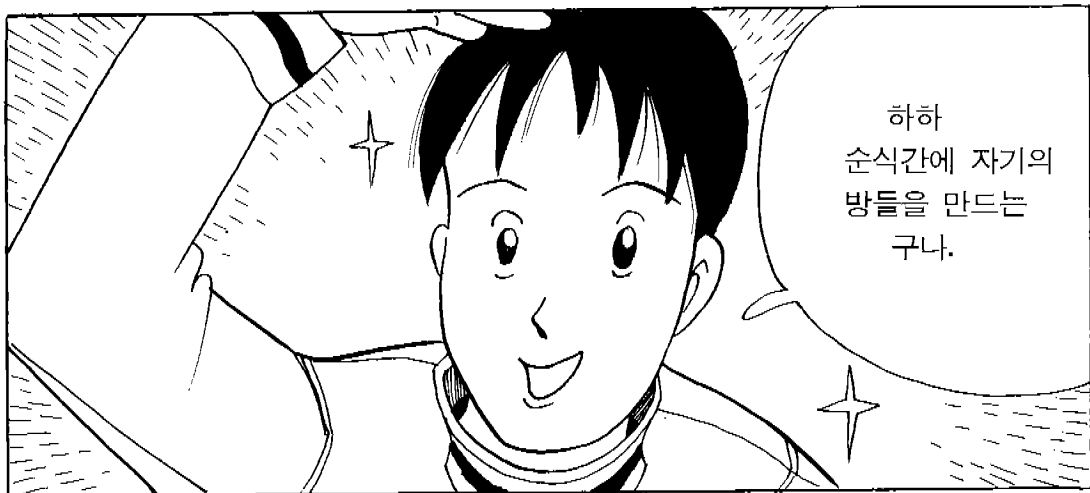


얼마든지 있어!
네가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주면
좋겠어, 서로를 볼 수
있는 방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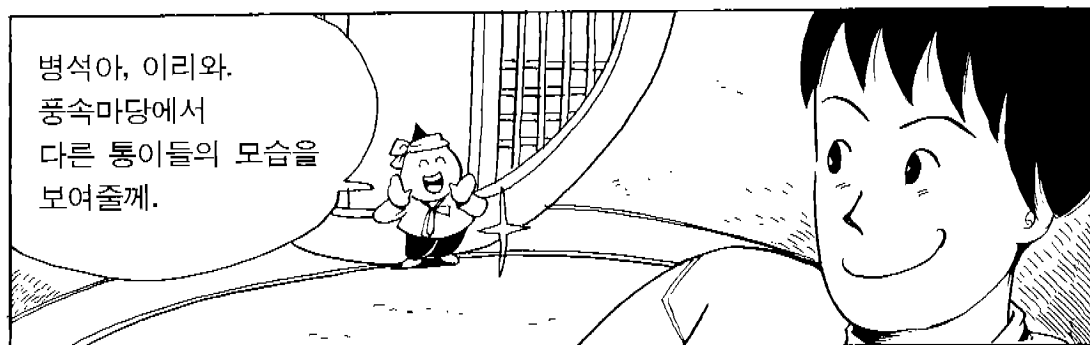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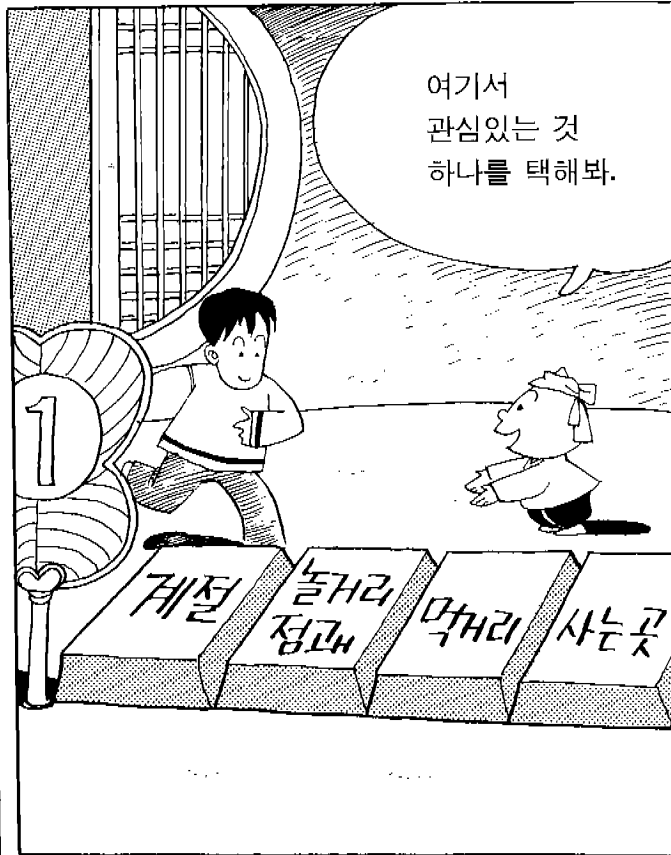




하하
순식간에 자기의
방들을 만드는
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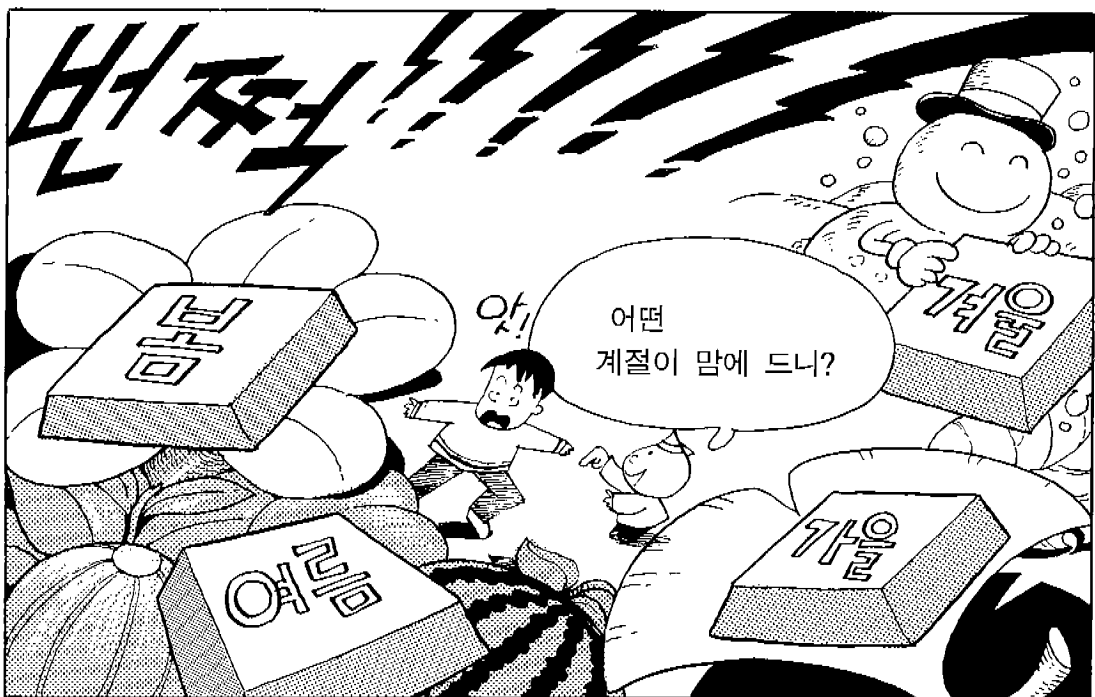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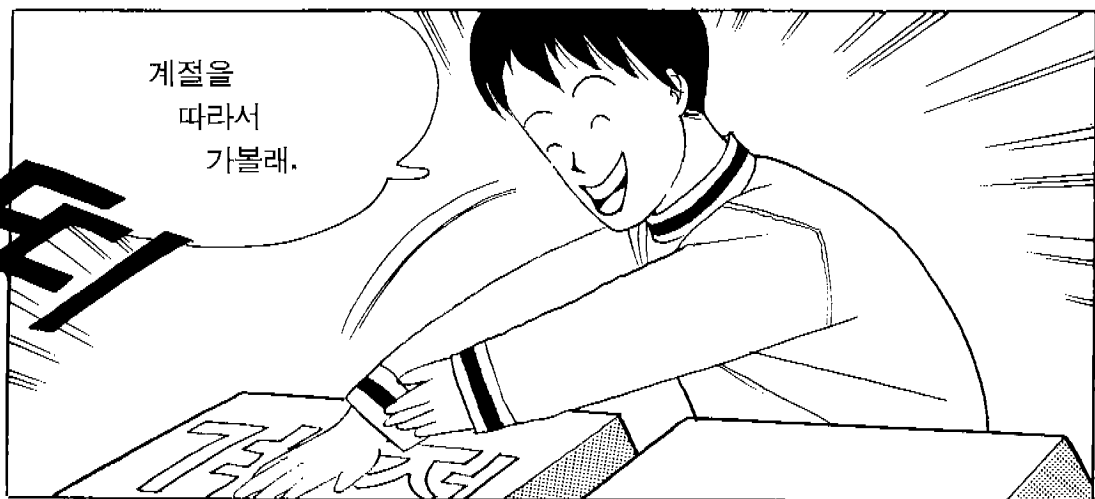
병석아, 이리와.
풍속마당에서
다른 통이들의 모습을
보여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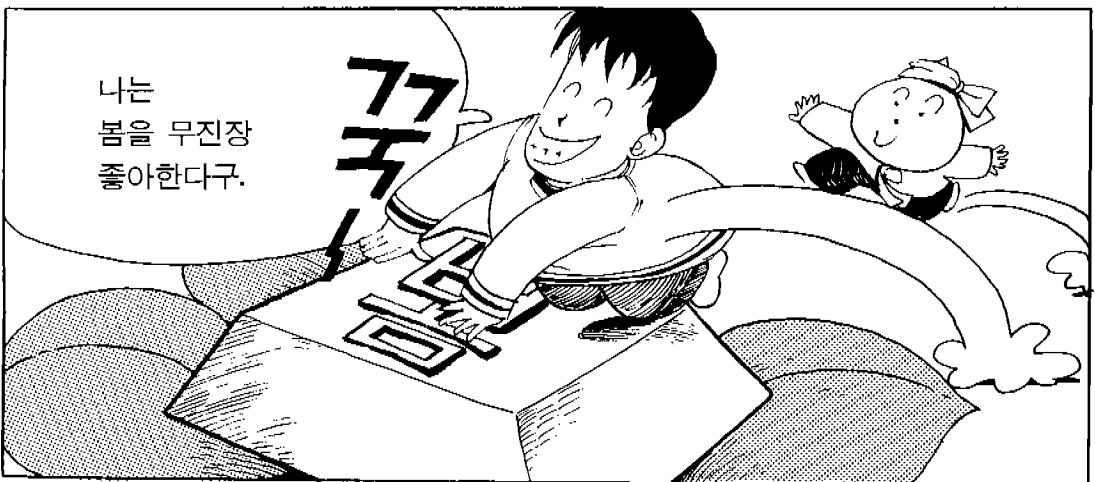
여기서
관심있는 것
하나를 택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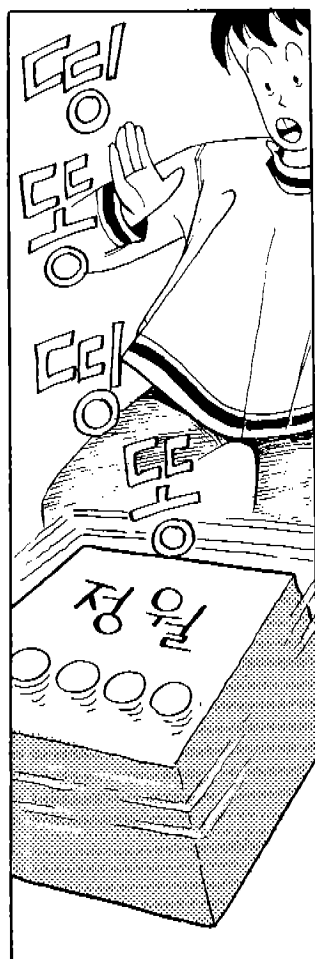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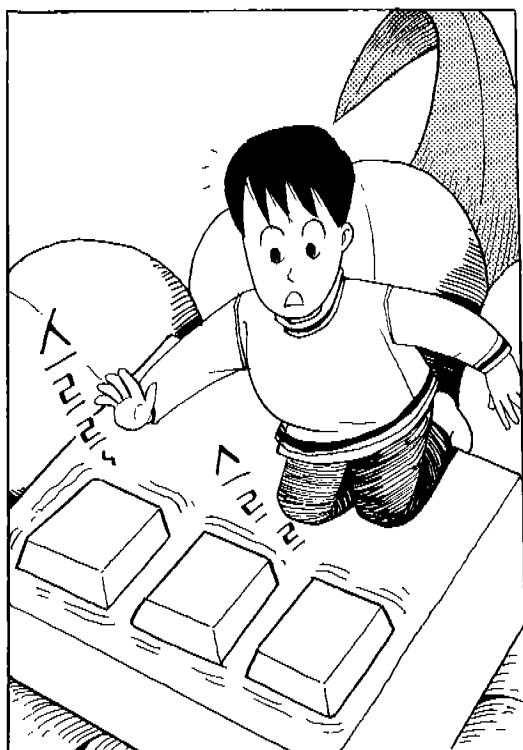
계절 놀거리
점과 막거리 사누곳

계절을
따라서
가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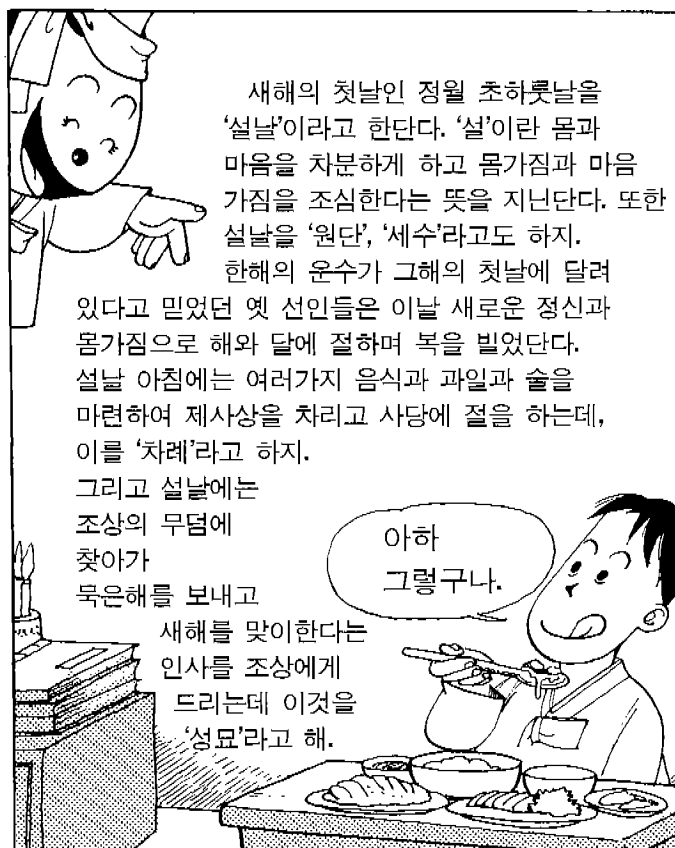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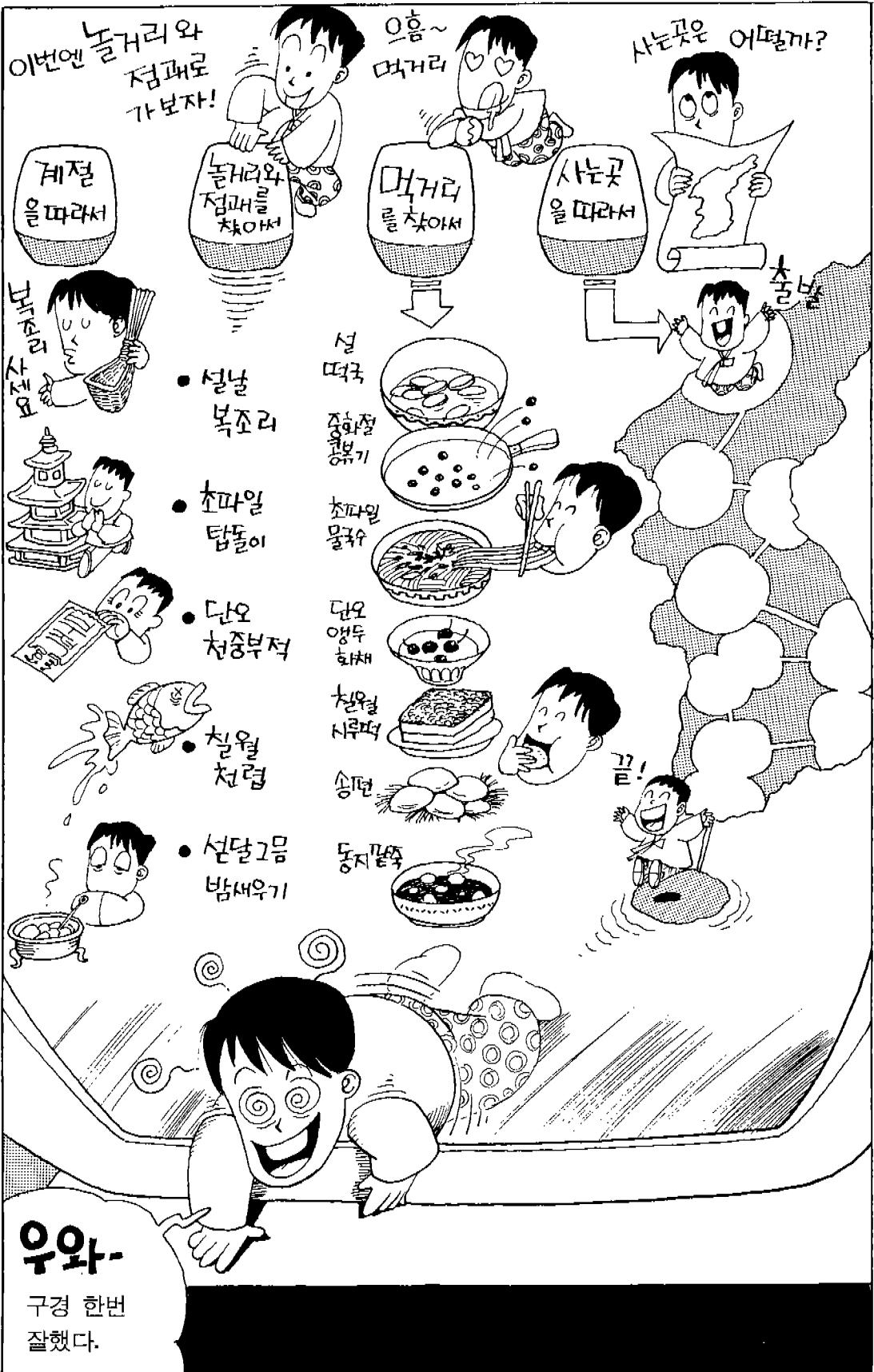
나는
봄을 무진장
좋아한다구.











이번엔 놀거리와
점패로
가보자!

으흠~
먹거리

사는곳은
어떨까?

계절
을 따라서

놀거리와
점패를
찾아서

먹거리
를 찾아서

사는곳
을 따라서



• 설날
복조리

설
떡국

장화
을
챙기기

• 초파일
탐돌이

초파일
물국수

단오
앵두
화채

• 단오
선중부석

칠월
사루떡

• 칠월
천렵

송편

• 선달그믐
밤새우기

동지
막국수

산길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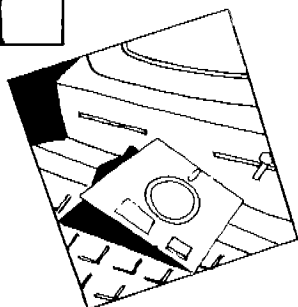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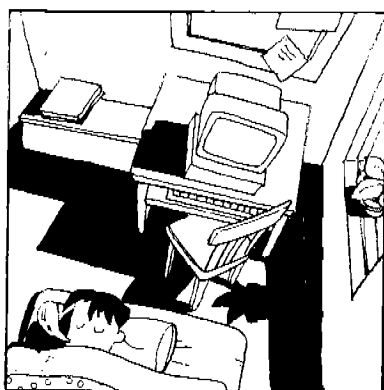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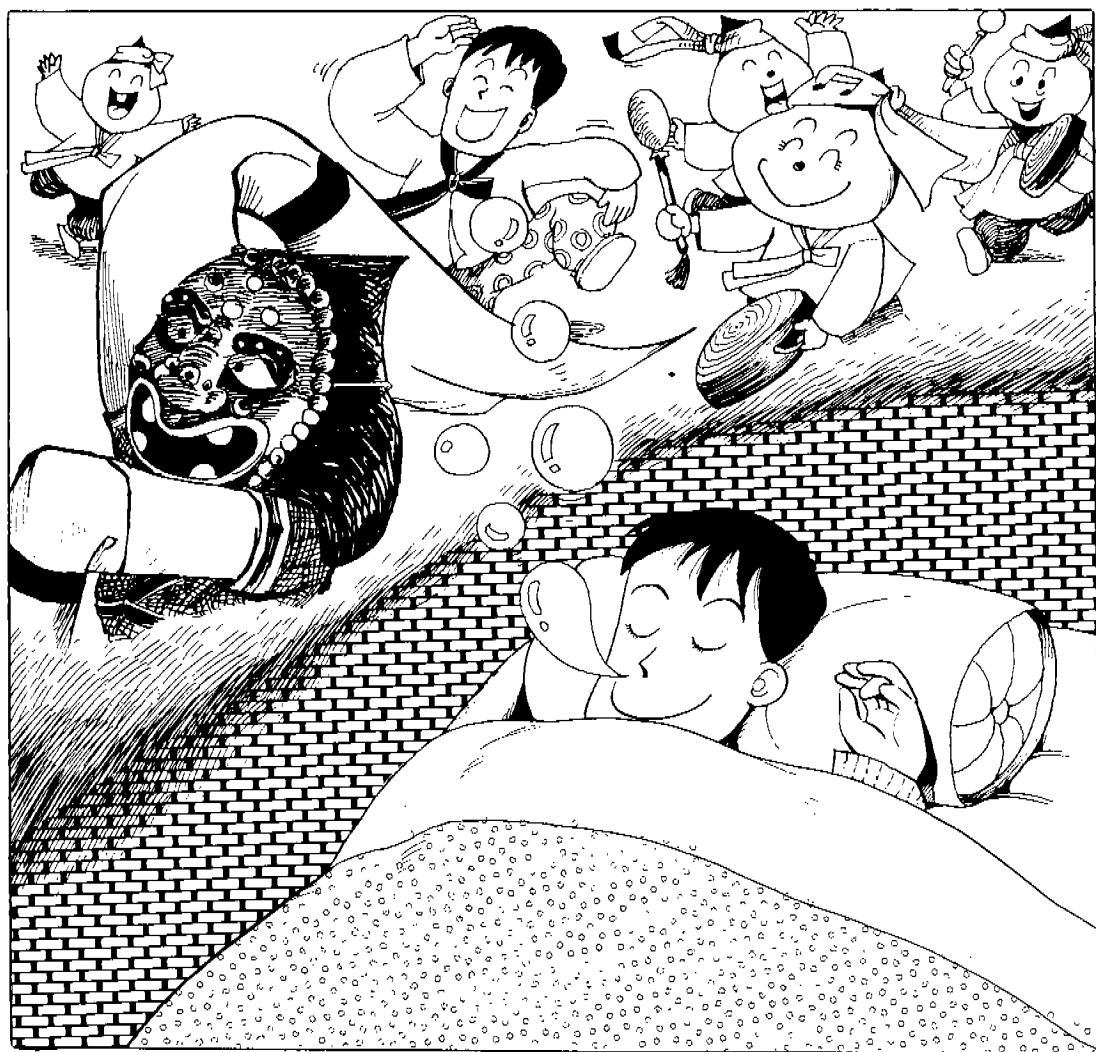
끄르!

우와-

구경 한번
잘했다.







병석이의 나중 이야기

여러분, 사랑방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세계였지요? 그래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오통이의 도움으로 찾은
‘우리의 눈’이에요.

이제 우리 가슴에 더욱 아름답게 사랑방을 가꿀수록, 그리고
소중히 하면 할수록 오통이는 빛바랜 전통의 보물을 다시
찾아 멋진 세상을 꾸밀 수 있을 거예요.

오통이는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대요.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의 희망과 사랑을
위해 기도하겠대요. 친구를 보내는 마음은 섭섭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통이의 마음과 사랑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 가장 큰 선물이 될테니까요.

이제는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야 할 시간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오통이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음은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해준대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몸과 마음의 눈을
크게 똑바로 뜨고 일어나야
할 시간이에요.

오통이의 모습을 간직하며
마당에 내려와 하늘을 보세요.
파란 하늘이 지나간 우리의 시간을
하나씩 비춰주네요.

그 속에 오색의 구름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
앞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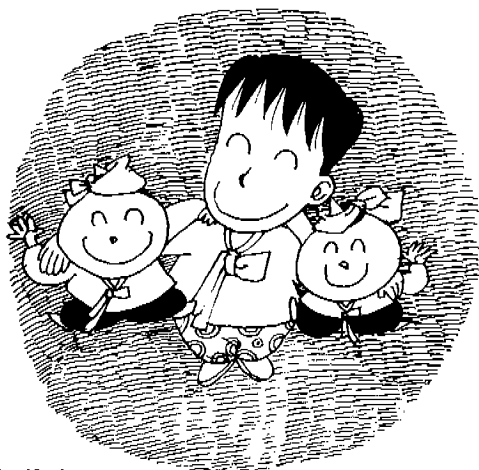
그리고 하늘과 땅을 보세요.

뒤도 돌아 보세요.

이 모두가 하나의 원이에요.

그래요. 전통은 ‘원’이에요.

둥근 보름달처럼 구김살 없는 ‘동그라미’예요.



— 안녕 —